金度演의 집을 찾아갔다 오는 길에 들르는 것이었다. 그만큼 권애라는 김도연을 자주 찾아다녔는데 그게 무슨 일 때문인지는 권경애로서 알 수 없었다. 금전적 도움을 받으러 다니는 것은 전혀 아니었고 김도연의 집에서 식사 같은 것을 대접받고 오는 것도 아니었다. 권애라는 늘 시장에 지쳐 허기진 상태였고 권경애가 밥을 지어 대접하면 아주 맛이 있게 먹었다. 그 모양은 허기가 져 한 끼의 밥을 얻어먹기 위해 찾아온 것과 다름없는 것이어서 권경애의 마음을 아프고도 딱하게 하였다. 권애라가 입고 다니는 것은 사철 검은 의바지 차림이었다. 일본을 그렇게 원수로 여기면서 그 옷차림은 일본 여자의 전시복 '몸뻬'인 의바지를 면치 못할만큼 그 가난이 심한 것이었다. 겨울에는 그 의바지가 담요의 천을 검정물들여 만든 것이고 여름에는 그게 얇은 천이었다.

권경애 내외의 신접살림도 그리 푼푼한 편이 못되어 음식다운 음식을 장만해 대접하기도 여의치 못했다. 한번은 권애라가 와서 가만히 권경애의 남편 한영권에게 말했다. '한서방, 우리집 할아버지가 탈기해 일어나지를 못하시네. 개 한 마리 값만 어떻게 마련해 주게'하는 것이었다. 권경애가 밖에서 이 소리를 듣고 가슴이 뛰었는데 그 남편이 어렵지 않은 게 아니면서도 그 돈을 마련해 주는 것을 보고 한숨을 내쉬었다. 이때에 김시현이 기동이 어렵게 쓰러졌다 하여 풍을 맞았다는 소문이 돌기도 하였는데 권경애의 말로는 뇌줄중을 일으킨 것은 아니라는 것이었다. 권경애의 시댁에서는 그 남편 한영권을 비롯하여 김시현과 권애라같이 올곧은 우국투사 내외를 섬기는 것을 미쁘게 생각하였다. 그리하여 권경애는 소시의 자기 아버지 권영일을 사촌동생으로서 귀여워하며 개성으로 데려다 가르치려했던 권애라 고모 내외를 친딸이나 다름없이 받들고자 하였다. 그러한 권경애가 어쩌다 술병과 생선회 안주를 떠 가지고 독박골 산동네로 찾아가 대접하면 김시현은 이를 참으로 고마워하며 맛있게 먹었다.

권경애 외에 이곳 불광동 독박골을 두세 차례 찾아다닌 것은 권경애보다 세 살 아래의 재종동생 권병기權柄基였다. 권병기는 권경애와 같이 권애라에게 친정 당질이 되고 권애라의 외아들 김봉년과는 17년 연하로서 내외재종간이었다. 이 무렵 권병기는 20대 후반에 들어 중앙일보사의 항공부에 근무하며 주로 수색의 직장에 나가 있으면서 어쩌다 불광동의 당고모를 찾아뵈러 갔다가 내재종형 김봉년에게서도 이런 저런 이야기를 듣고 오게 되었다. 김시현의 안동 풍산 세거에 있던 시골 재산도 선산과 고택이 된 집 한 채 외에 거의 남은 게 없게 되고 김봉년의 처가인 경주의 '최부자집'도 그 부가 점차 전설로 되어갔으며 가난은 나라에서도 구제를 못한다는데 사돈과 사위가 된 김시현 부자를 무한정 도울 도리도 없었다. 그쪽에서도 풍운의 김시현 부자에게 정치자금 등으로 도와준 것이 헤아릴 수가 없었거니와 그렇지 않더라도 출가외인의 딸네 사돈집 생계를 무한정 도와줄 이치도 없는 일이었다. 그런 곤궁 속에서도 아들 김봉년 내외는 2남2녀의 손자녀를 낳아 기르고 손자녀가 점차 자라니 초협한 움막집에서는 용신이 더욱 어려웠다.

권경애와 권병기의 증언에 의하면 권애라는 고향 교동의 동산리에도 자주 다녔다. 이는 사실 식구가 연명할 양식을 얻기 위해서였다. 교동의 동산리는 예부터 양곡이 많이 나서 식생활에 어려운 사람이 없다는 고장이었다. 그곳의 친정 친족 중에는 뜻있는 사람도 있고 하여 권애라가 갈 때마다 곡식 가마를 추렴해 마련해서는 배턱으로 날라다 인천으로 실어보냈고 권애라는 인천 연안부두에서 이를 서울로 싣고 갔다. 이러한 교동 동산리의 권애라 생가는 지금도 그대로 남아 있어 타성인이긴 하지만 서로가 권씨네와 연혼 관계인 사람이 살고 있다고 한다.

이처럼 곤궁하기 그지없는 처지에서 노환이 발병하여 1년여를 일어나지 못하던 김시현은 그 병세가 더욱 심해졌다. 그리고 1960년 1월 3일 저녁 8시에 84세로 세상을 버렸다. 이때까지도 김시현은 평생 그랬듯이 아내 권애라를 동지라 불렀다. 마지막 길을 떠나면서 김시현은 권애라에게 이렇게 말했다.

"권동지權同志, 미안하오. 내가 조국 독립을 위해 몸바쳐 투쟁했는데 반쪽 독립밖에 이룩하지 못했소. 남은 생을 조국통일 사업에 이바지해 주오."

김시현이 숨을 거두자 세상은 다소 놀랄 일을 벌였다. 김시현의 장례를 사회장社會葬으로 치르게 되었던 것이다. 김시현의 사회장 명은 대통령 박정희의 지시로 떨어진 것이었다. 그리하여 그 장례위원회의 9인의 고문 중에 현직 대통령 박정희가 그 으뜸에 이름을 올렸고 장례위원장은 상산常山 김도연金度演이었다. 장례위원회는 서울 종로구 공평동에 있는 영우회嶺友會 사무실에 차렸다. 김시현의 장례는 9일장이 되어 사망 9일째가 되는 1월 11일 11시에 서울 시청앞 광장에서 조악吊樂이 연주되고 조포吊砲가 터지는 가운데 영결식이 성대히 거행되었다. 영결식을 마친 영구는 경북 예천군 호명면의 선영하로 운구되어 안장되었다.

3면에서 계속

확인하기 어렵다. 어머니의 성씨는 확실하지 않다. 두 부인을 두었는데 상원부인上院夫人과 남원부인南院夫人으로 전해질 뿐이다. 견훤은 장자이며 동생으로 능애能哀、용개龍蓋、보개寶蓋、소개小蓋와 누이 대주도금大主刀金이 있다. 그런데 고기古記에는 광주光州의 북촌北村에 한 부자가 살았는데 그 딸이 지렁이와 교혼交婚하여 그를 낳았다고 한다. 이것은 어머니의 가문이 광주 지역의 호족이었을 것으로 추측케 한다. 자랄수록 체모가 남달리 뛰어났으며 뜻을 세워 종군하여 경주로 갔다가 서남해안의 변방비장邊方裨將이 되었다. 이때는 신라왕실의 권위가 떨어졌고 지방은 호족이 점거하여 반독립적인 세력을 형성하고 있었다. 특히 진성여왕이 즉위하면서 왕의 총애를 받는 몇몇 권신의 횡포로 정치기강이 문란하여지고 기근이 심하여 백성의 유망과 초적草賊의 봉기가 심하였다. 이때 경주의 서남 주현을 공격하니 이르는 곳마다 많은 사람이 호응하여 마침내 892년(진성여왕 6)에 무진주武珍州(광주)를 점령하고 스스로 왕위에 올랐다. 그리고 신라서면도통지휘병마제치지절도독 전무공등주군사 행전주자사 겸 어사중승상주국 한남군개국공 식읍이천호新羅西面都統指揮兵馬制置持節都督全武公等州軍事行全州刺史兼御史中丞上柱國漢南郡開國公食邑二千戶라고 자칭하고 북원北原(원주)의 적수賊首 양길梁吉에게 비장이라는 작위를 내리는 등으로 세력을 확장하였다. 900년(효공왕 4)에 완산주(전주)에 순행하여 그곳에 도읍을 정하고 후백제왕이라 칭하였으며 모든 관서와 관직을 정비하였다. 이듬해 대야성大耶城(합천)을 공격했으나 함락시키지 못했다. 910년(효공왕 14)에 왕건王建이 나주를 정벌한 데 노하여 보기步騎 3천을 거느리고 이를 포위공격하였지만 이기지 못하였다. 그 뒤 왕건이 궁예弓裔를 축출하고 고려를 건국하자 견훤은 일길찬一吉 민극閔 을 파견해 그 즉위를 축하했다. 그러나 사실 이때 고려와 후백제는 잦은 세력다툼을 벌이고 있었다. 920년(경명왕 4)에 견훤은 보기 1만으로 대야성을 쳐 함락시키고 군사를 진례성進禮城(청도)으로 옮겼다. 이에 경명왕은 김률金律을 고려에 보내 도움을 청했다. 924년(경애왕 1)에 견훤은 아들 수미강須彌强을 파견해 조물성曹物城(상주 부근 혹은 안동)을 공격했으나 성안의 병사가 굳게 지켜 이기지 못했다. 이듬해 왕건과 화친하고 서로 언질을 교환하였다. 그런데 볼모로 간 진호眞虎가 925년에 고려에서 병사하자 왕건이 보낸 볼모 왕신王信을 죽이고 군사를 내 고려를 공격함으로써 일시적인 화해는 깨졌다. 견훤의 세력이 날로 강성해지자 신라는 왕건과 연합해 대항하고자 하였다. 이에 927년 근품성近品城(상주)을 공격하고 고울부高鬱府(영천)를 습격하였다. 이어서 경주로 진격하여 포석정에서 경애왕을 살해하고 왕의 족제 김부金傅를 세웠다. 견훤은 많은 아내를 두어 10여명 아들을 얻었다. 그 중에 넷째아들 금강金剛을 특히 사랑하여 왕위를 물려주려 하니 그 형 신검神劍、양검良劍、용검龍劍 등이 이를 알고 근심하던 중 양검을 강주康州(진주) 도독으로, 용검을 무주武州(광주) 도독으로 삼고 신검을 홀로 그 곁에 두자 신검은 이찬伊 능환能煥으로 하여금 사람을 무주、강주로 보내며 음모를 꾸몄다. 935년 3월에 견훤은 신검에 의해 금산사에 유폐되고 금강은 살해되었다. 견훤은 금산사에 석달 동안 있다가 6월에 막내아들 능예能乂와 딸 쇠복衰福 및 첩 고비姑比 등과 함께 나주로 탈출한 뒤 고려에 사람을 보내 의탁하기를 청했다. 이에 왕건은 유검필庾黔弼을 보내 맞이하고 백관보다 높은 상보尙父의 지위와 양주楊州를 식읍으로 주었다. 그뒤 후백제는 점차 내분이 생겨 왕건에게 멸망했다. 신검、양검 등은 한때 목숨을 부지했으나 이윽고 모두 죽었다. 견훤 또한 우울한 번민에 싸여 괴로워하다 창질이 나 연산連山의 불사佛舍에서 죽었다.

견훤왕이 창질을 앓다가 숨을 거둔 절은 정확히 황산불사黃山佛舍이다. 이는 황산黃山에 있는 불사佛舍인데 어디에는 황산사黃山寺라고도 나오고 위에서는 연산連山의 불사라 하고 있다. 또 혹은 논산의 훈련소가 있는 연무읍 일대를 황산벌이라고도 한다.

황산은 고을 이름으로는 지금의 논산시 연산면 일대로서 연산連山의 고명이고 산으로는 그 고을에 있는 황산을 말한다. 연산 고을은 동으로 진잠鎭岑과 접하고 금산의 진산珍山, 남으로 전북 완주의 고산高山과 은진恩津, 서로 이산尼山과 공주公州에 접했다. 본디 백제의 황등야산군黃等也山郡이었다가 신라가 황산군黃山郡으로 고치고 고려초에 연산군連山郡으로 했다가는 현종 때 공주에 속하게 하고 감무監務를 두었는데 조선 태종 때 현縣으로 했으며 일제시 논산군에 병합되어 오늘에 이른 것이다.

산으로서의 황산은 달리 천호산天護山이라고도 하며 연산 고을 동쪽 5리허에 있다. 신라의 김유신金庾信이 군사를 거느리고 이곳으로 오고 당唐의 소정방蘇定方이 금강으로 거슬러 올라와 백제를 공격하니 백제의 계백階伯이 이 황산 아래 벌판에 3영營을 베풀고 네 차례 싸워 모두 이겼으나 군사가 부족하여 결국 패하였고 이어 백제는 망했다. 여지승람의 기록을 보면 '견훤이 고려 태조를 좇아 그 아들 신검을 토벌하니 신검의 군사가 패하여 항복했다. 견훤은 우분憂憤이 가득하고 등창이 발병하여 며칠만에 황산불사黃山佛寺에서 졸했다'고 나온다.

연산의 황산에는 두 곳의 명찰이 있는데 하나는 개태사開泰寺이고 하나는 고운사孤雲寺이다. 이 두 명찰 가운데 한 곳에 견훤이 있었는지 또는 그 밖의 이름없는 불사에 있었는지는 알 수 없다. 개태사는 근세에도 호남선철도의 개태사역이 생겼을만큼 이름난 곳인데 거기에 고려 태조의 진전眞殿이 있었다. 고려 태조 19년, 936년에 2월이 되자 견훤왕의 사위 박영규朴英規가 고려에 귀항했다. 박영규는 순천박씨順天朴氏의 시조로 뒤에 삼중대광三重大匡에 이르고 두 아들도 관직을 받았으며 두 딸은 왕태조의 동산원부인東山院夫人과 정종定宗의 비 문공왕후文恭王后가 되었다. 박영규가, 후백제가 구제불능임을 알고 그 아내와 상의 끝에 고려와 내약을 맺은 뒤 6월에 신검이 금강을 죽이고 부왕을 유폐하는 정변이 일어났으며 이윽고 견훤왕도 고려에 귀부하여 9월에 후백제가 망했다. 고려 태조는 견훤왕과 연합하고 박영규의 내응을 받아 신검을 토벌해 일리一利라는 곳에서 대파해 신검을 멸망시켰다. 이때 후백제의 30여 성도 얻었다. 일리가 성주星州의 한 고을 구명인데 이때의 일리는 다른 곳이었던 것같다. 어쨌든 이를 기념하여 그 전승한 곳에 절을 지어 이름을 개태사開泰寺로 하여 크게 개벽했다는 뜻으로 하고 황산도 하늘이 돕는다는 뜻의 천호산天護山으로 바꾸게 하였으니 이 개태사는 아마도 견훤왕의 사후에 창건되었을 것이다. 고운사는 신라의 고운孤雲 최치원崔致遠과 관련이 있었지 않나 싶으니 견훤왕이 임종지로 택했을 것같지 않다. 연무읍에 있는 논산훈련소의 노래가 '백제의 옛 터전에 계백의 정기 맑고 관창의 어린 뼈가 지하에 흔연하니… 로 시작되어 그 자리한 곳을 황산벌로 삼고 있는데 사실인즉 황산벌은 천호산 아래인 것이다.

<사진 · 글 權五焄>